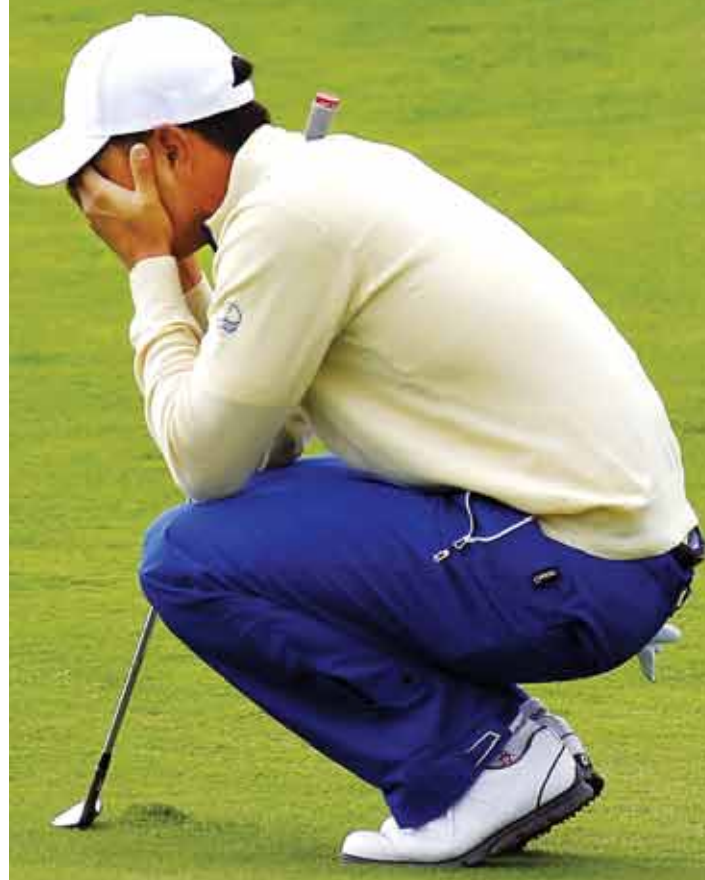


Ah! 통한의 18번홀



2015 프레지던트컵 골프대회 마지막 날인 11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에서 대회 승리를 거둔 미국팀 선수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Ha! 1점차 체면치레

11일 인천 송도 잭 니클라우스 GC에서 열린 2015 프레지던트컵 마지막날 싱글 경기에서 인터내셔널팀의 배상문이 18번홀에서 결정적인 세번 째 샷 실수를 한 뒤 아쉬워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내셔널팀 마지막조 배상문 샷 실수로 승리 놓쳐
미국팀 6회 연속 우승...역대 전적 9승1무1패 우위



인터내셔널팀이 객관적인 전력 열세 속에 맹추격을 벌였지만 미국에 어렵게 무릎을 꿇었다.

한국, 남아공, 호주 등 다국적 선수로 구성된 인터내셔널팀은 11일 늦은 날씨 속에 인천 송도의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파 72·7380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싱글 매치플레이어 12경기에서 마지막 조인까지 가는 접전을 펼친 끝에 5승2무5패로 맞섰다. 하지만 최종 승점 15.5-14.5로 우승컵을 미국에 넘겨줬다.

미국은 2005년부터 6회 연속 우승을 차지해 역대 전적에서도 9승1무1패의 압도적인 우위를 확인했다. 대회 사흘째까지 승점 8.5-9.5로 추격하던 인터내셔널팀은 싱글 매치플레이어에서 역전을 노렸지만 탄탄한 전력의 미국에 무릎을 꿇었다.

인터내셔널팀은 두 번째 주자인 애덤 스퀷(호주)이 리키 파올라(미국)에 6홀차 완승을 거두고 1번 주자 루이 우스트허즌(남

아공)이 패트릭 리드(미국)와 경기에서 무승부를 끌어내 초반에는 대등하게 갔다. 하지만 미국이 더스틴 존슨이 뉴질랜드 교포 대니 리(25)에 1홀차 승리를 낚았고, 베타랑 필 미컬슨이 찰 슈워젤(남아공)을 상대로 14번홀에서 5홀을 앞선 채 경기를 끝내며 12-10으로 승점차를 벌렸다. 이후 우승에 필요한 승점 15.5점까지 3.5점을 남겨줬던 미국은 추축했고, 인터내셔널팀의 반격이 시작됐다.

J.B. 홀스(미국)와 17번홀까지 동점으로 맞서던 마쓰야마 히데키(일본)는 18번홀(파5)에서 세 번째 샷으로 홀 1m에 붙인 뒤 버디로 마무리, 인터내셔널팀에 소중할 승점 1을 보냈다. 통치이 짜이디(태국)와 대결한 버바 왓슨(미국)은 18번홀에서 40cm 남짓한 버디 퍼트를 놓쳐 다잡은 승리를 넘겨주고 무승부를 허용했다. 여기에 스티븐 보디치(호주)는 지미 워커(미국)를 2홀차로 꺾고 12.5-12.5, 동점을 만들었다.

그러나 아니르반 라히리(인도)가 18번홀에서 1m가 안되는 버디 퍼트를 놓쳐 크리스 커크(미국)에게 1홀차로 패했고, 믿었던 에이스 제이슨 데이(호주)는 잭 존슨(미국)에게 2홀차로 무너졌다. 마크 레시먼(호주)이 미국팀의 에이스 조던 스피스

15.5	최종 결과	14.5
미국팀	승	인터내셔널팀
5	11일(일) 5라운드(최종) 싱글 매치	5
패트릭 리드	무승부	루이 우스트허즌
리키 파올라	6&5	애덤 스퀷
다스틴 존슨	2&1	대니 리
J.B. 홀스	1up	마쓰야마 히데키
버바 왓슨	무승부	통치이 짜이디
지미 워커	2up	스티븐 보디치
필 미컬슨	5&4	찰 슈워젤
크리스 커크	1up	아니르반 라히리
조던 스피스	1up	마크 레시먼
잭 존슨	3&2	제이슨 데이
맷 쿨처	2&1	브랜던 그레이스
빌 호스	2up	배상문

6&5: 5홀을 넘기고 6홀로 이겼다는 뜻
자료: 2015presidentcup.com

를 1홀차를 꺾는 이번을 일으키고 브랜던 그레이스(남아공)가 맷 쿨처(미국)를 1홀차로 물리치면서 승부는 14.5-14.5,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남은 것은 마지막 조로 한국의 배상문(29)과 빌 하스(미국)의 경기였다. 배상문은 17번홀까지 1홀차로 뒤져 18번홀에서 무승부를 노렸지만 하스에게 2홀차로 패했다. /연합뉴스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승부...대회 성공적”

최경주 인터내셔널팀 수석부단장

“프레지던트컵 사상 가장 치열한 승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 프레지던트컵 골프대회 인터내셔널팀 수석 부단장을 맡은 ‘탱크’ 최경주(45·SK텔레콤)가 이번 대회를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11일 대회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경주는 “비록 인터내셔널 팀이 졌지만 2003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대회 이후 가장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다”며 “닉 프라이어 단장과 선수들이 모두 한국 팬들에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자주 했는데 이 자리를 빌려 대신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경주가 말한 2003년 대회에서는 미국과 인터내셔널 대표팀이 17-17로 무승부를 기록했고 올해 대회에서는 미국이 1점 차로 신승했다.

최경주는 “총점을 30점으로 낮춘 제도 변경이 역시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총평하며 “인터내셔널이 이기기를 기원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아쉽다”고 덧붙였



다. 인터내셔널 팀의 수석 부단장 역할을 한 그는 “특히 선수들이 ‘이렇게 환대를 받은 대회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 전하며 “무엇보다 숙소와 대회장의 거리가 가깝고 코스 상태나 음식 등에서 모두 만족스러운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일한 한국 선수로 출전한 배상문(29)의 마지막 18번 홀 실수에 대해서는 “닉 프라이어 단장이 말했듯이 앞으로 선수가 발전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보며 “좀 더 길게 보고 있어야 했는데 바로 올려서 굴러가려 한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18번홀 240야드를 남기고 친 두 번째 샷에서 그린에 미치지 못했던 배상문은 세 번째 샷에서 뒤땅을 쳤고, 볼은 다시 급경사를 타고 내려오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그는 “사실 어제 (배)상문이가 마지막 순번으로 들어가면서 큰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대로 됐다”며 “프라이어 단장도 중간에 넣을지 마지막으로 뺀지 고민이 많았다가 부담을 이겨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대진 편성의 뒷이야기도 들려줬다.

세 차례 이 대회에 출전한 최경주는 “선수보다 더 어렵더라. 모든 선수의 컨디션이나 심리 상태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부단장 역할이 쉽지 않았다. 그래도 내가 돌을 묶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조가 실제로 이겼을 때의 통쾌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며 활짝 웃었다. /연합뉴스

이보미 JLPGA 우승...시즌 최다 상금

이보미(27)가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스탠리 레이디스 토너먼트(총상금 9000만엔) 우승을 차지했다.

이보미는 11일 일본 시즈오카현 도메이 CC(파72·6583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4언더파를 기록했다.

이날 3라운드 경기는 짙은 안개 때문에 9개 홀 경기로 축소해 진행됐다.

최종합계 12언더파로 우승한 이보미는 시즌 5승, 투어 통산 13승째를 거뒀다. 우승 상금은 1620만엔(약 1억5000만원)이다.

공동 2위인 와카바야시 마이코, 후지모토 아사코(이상 일본)를 3타 차로 제친 이보미는 시즌 상금 1억7954만66엔(약 17억4000만원)으로 JLPGA 투어 사상 시즌 최다 상금 기록을 세웠다. 종전 기록은 2009년 요코미네 사쿠라



(일본)의 1억7501만6384엔이었다. 이보미는 지난달 초 골프5 레이디스 토너먼트 이후 약 1개월 만에 승수를 추가했다. /연합뉴스

두산 2연승 “PO 진출 1승만 더!”

프로야구 준PO 2차전

넥센에 3-2 승...내일 3차전

‘뚝심의 꿈’이 플레이오프 8부 능선을 넘었다.

두산 베어스가 11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넥센 히어로즈와의 2015 KBO리그 준플레이오프(준PO) 2차전에서 3-2로 이기며 2연승을 달성했다. 5전3선승제로 진행되는 준PO에서 두 경기 연속 1점차 승리를 거둔 두산은 플레이오프까지 1승을 남겨두게 됐다.

조반 양팀 타선이 찾아온 기회를 시원하게 살리지 못하면서 잔루가 쌓였다. 넥

센 서건창이 1회 1사에서 두산 선발 장원준을 상대로 좌전안타를 뽐냈지만 후속 타자가 나오지 않았다.

1회말 두산이 넥센 선발 피어밴드의 ‘사사구 행진’에 선취점을 올렸다. 1사에서 허경민이 볼넷으로 나간 뒤 박건우가 볼넷, 양의지의 몸에 맞는 볼이 나오면서 베이스가 가득채워졌다. 민병현의 볼넷까지 이어지면서 두산이 밀어내기로 선취점을 만들었다. 오재원의 헛스윙 삼진으로 추가점은 없었다.

2회 넥센이 1사2루에서 연속안타로 동점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김하성의 중전안타 때 3루로 향한 1루주자 윤석

민이 태그 아웃이 됐고, 김하성의 도루실 패까지 나오면서 추가점 없이 넥센의 이날이 종료됐다.

두산이 2회말 2사 2루에서 나온 허경민의 적시타로 2-1로 앞서나갔지만 3회초 넥센이 선두타자 박동원의 두 경기 연속 홈런으로 다시 2-2 균형을 맞췄다.

넥센의 볼넷이 먼저 가동됐다. 초반 불안한 제구를 보였던 피어밴드가 4회 두타자 연속 삼진으로 이닝을 끝냈지만 101개의 투구수를 기록하면서 5회 하영민의 가깝고 코스 상태나 음식 등에서 모두 만족스러운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고 오재원의 타석 때 이날 경기의 결정적인 장면이 나왔다. 오재원의 플라이를 잡은 중견수 이택근이 홈에 정확히 송구를 했다. 타이밍상 아웃이었지만 3루 주자 김현수가 포수 박동원과 충돌을 했고, 공이 떨어지면서 득점이 기록됐다.

선발 장원준인 6이닝 2실점으로 물러난 뒤 두산이 노경은-함덕주-이현승을 내세워 승리 지키기에 나섰다. 7회를 삼자범퇴로 막은 노경은이 8회 선두타자 볼넷을 허용하자 함덕주가 나왔다. 내야안타-희생번트로 맞은 1사 2:3루 위기에서 이택근이 좌익수 플라이로 돌아서자 베타랑 이현승이 출격했다. 넥센의 4번 타자 박병호를 고의사구로 내보낸 이현승은 유한준을 중견수 플라이로 처리하면서 승기를 굳혔다.

준플레이오프 최종전이 될 수 있는 3차전은 오는 13일 목동구장에서 열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